

人文論叢

81권 3호

2024년 8월

일반 논문

춘추전국부터 한대 초엽의 오자서(伍子胥) 형상 고찰

김월희**

『사기』(史記)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

다시 읽기 (1)*

초록 이 논문은 「오자서열전」을 선진(先秦)시기 이래 수행되어온 복수에 대한 담론의 역사에 위치시켜 다시 읽어냄으로써 그것을 전근대시기 중국 복수론의 중요한 텍스트로 재정립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작업은 모두 2편의 논문을 통해 수행되는데, 이 논문은 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오자서열전」의 복수론을 내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마천 이전 시기에 오자서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곧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한 까닭은 사마천이 「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를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해냈는지를 살펴봄에 그것이 유용한 참조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오자서열전」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해당 서술을 분석하였다. 「오자서열전」의 내용은 간결한 서두를 제외하고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오자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섯 부분의 내용을 내재적으로 읽어냈다. 4장은 이 논문의 결론으로 이상의 고찰이 오자서 복수 서사 읽기의 역사와 고대 중국 복수론의 역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짚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오자서열전」에 투영된 사마천의 복수론을 읽어내는 데 초석이 될 것이고, 「오자서열전」 다시 읽기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복수, 복수론, 복수이야기, 오자서, 오자서열전, 사기, 사마천, 춘추전국시대

* 본 연구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오자서열전」의 사적 위상과 의의

춘추전국시대에는 복수 이야기가, 그러니까 복수를 소재 또는 제재로 삼은 이야기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듯이 복수는 신화나 역사는 물론 감성을 표출하고 이치를 담론하는 글에 널리 등장하였다. 인류의 문명이 개인부터 씨족, 부족, 국가에 이르는 제반 차원에서 벌인 상호 쟁투를 동력으로 삼아 유지되고 갱신된 만큼 복수 이야기가 고대 문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야기뿐 아니라 복수에 대한 논의도 『예기』(禮記), 『주례』(周禮) 같은 경전을 비롯하여 『논어』(論語), 『맹자』(孟子), 『순자』(荀子), 『노자』(老子), 『장자』(莊子), 『한비자』(韓非子) 등의 제자백가 문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국어』(國語), 『전국책』(戰國策) 같은 역사서에 적잖이 담겨 있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복수에 대한 사유가 넓고도 깊게 수행되었음을 일러준다.

이 과정에서 복수는 ‘인문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복수에 대한 사회적·문명적 차원의 대응으로, 필자가 「선진시기 복수의 인문화 양상」¹이라는 선행 연구에서 수행했듯이 논술의 형식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² 적잖이 존재하는 선진(先秦)시기의 복수 관련 이야기와 의론을 통해 충분히 재구성 가능하다. 상기 논문에서 상술했듯이 복수의 인문화 과정은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 병행되었으며, 복수에 대한 자발적 규율성과 제도적 규율성을 마련함으로써 인간학적, 공적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는 복수의 인문학을 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여러 나라가 중원

1 김월희(2015), 『중국문학』 83, 한국중국어문학회.

2 논술의 형식으로 복수가 의론되는 것은 ‘논’(論), ‘해’(解), ‘의’(議), ‘변’(辯), ‘설’(說), ‘원’(原), ‘박’(駁) 같은 논술에 특화된 문체가 성립되어 가던 당대(唐代) 이후에 등장한다. 가령 당대 진자양(陳子昂)의 「복수의장」(復讐議狀), 한유(韓愈)의 「복수장」(復讐狀), 유종원(柳宗元)의 「박복수의」(駁復讐議) 및 송대 왕안석(王安石)의 「복수해」(復讐解)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 패권을 놓고 각축하던 전국시대를 거쳐 중원이 '크게 통일[大一統]된 제국'의 질서를 갖춰나가는 단계에서 복수의 '양날의 칼'³ 중에서 '약'이 되는 부분은 살려 나가고 '독'이 되는 부분은 제거해가면서, 이와 관련한 이념과 윤리, 제도 등을 구축하여 가는 과정이었다. 필자는 대일통된 제국의 통치 질서를 정립하여 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수행된 이러한 복수의 인문화 결과가 대표적으로 제도적 규율성 차원에서는 『주례』 '조인(調人)' 조에서의 조인이라는 관직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⁴ 자발적 규율성 차원에서는 「오자서열전」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것이 이 글에서 「오자서열전」에 주목하게 된 첫 번째 이유다.

이는 「오자서열전」이 복수의 문제를 역사 기술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선진시기부터 지속해온 복수 관련 사유와 통찰이 집적되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햄릿』에 대한 다음의 분석을 참조할 만하다.

『햄릿』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모든 요소를 다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당한 분노와 질서 회복을 위한 복수, 세네카의 『분노에 관하여』가 보여주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형성 기술로서의 감정 통제, 복수를 위한 아트레우스의 자기 채찍질, 헤이우드의 튀에스테스가 보여주는 신적 정의에 대한 염원, 히에로니모와 타이티스가 대결해야 했던 공적 정의가 부재하는 황량한 세상, 폭군의 문제, 개인적 복수의

3 김월희(2015)에서 이와 관련한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복수는 비유컨대 양면의 칼이다. 그것은 인류가 문명을 일구며 생존, 번영하는 데 굴하지 않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어느 수준의 사회나 문명을 막론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 복수에 대한 감정과 공평함에 대한 요구, 곧 보복과 평등에 대한 욕망에서 정의의 기원을 찾은 통찰이 복수의 건설적 힘에 주목한 것이라면, 복수는 야만적 정의(wild justice)이므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해 치달을수록 법률과 같은 국가장치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통찰은 복수가 지닌 파괴적 힘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다.”

4 이에 관해서는 김월희(2015), p. 131 참조.

문제, 신의 섭리의 문제, 과거와 미래의 문제 등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하여 세네카의 비극을 거쳐 르네상스 영국에 도착한 복수 비극의 역사가 이 작품 하나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복수 비극의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복수 비극의 역사를 신호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위에 열거한 요소들이 특정성의 경계를 넘어 인간 조건에 대한 명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⁵

필자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복수 관련 지성의 역사에서 『햄릿』이 지니는 위와 같은 위상과 비중을 중국의 그것에서는 「오자서열전」이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⁶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선진시기부터 한대(漢代) 초엽까지 진행된 복수론의 역사에서 「오자서열전」은 ‘특수한 보편자’⁷였다고 할 수 있다. 오자서(?~484 BCE)의 복수에 집중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수’하지만, 이를 통해 복수 전반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이 글에서 「오자서열전」에 주목한 두 번째 이유다.

한편 『사기』는 사마천 자신이 역사 집필을 통해 “일가의 언설을 이루겠다”⁸라고 고백했듯이 역사 서술의 양태로 입론을 수행한 텍스트이다. 이는 열전 서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고, 사마천이 「오자서열전」에서 복수 관련 앞선 시기의 사유와 통찰을 오자서 일대기 서술에 녹여냄으로써 앞선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온 복수의 인문화를 총결한 것도 이러한 지향의 실천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사마천은 오자서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복수 서사를 함께 다룸으로써 복수와 연관된 문제에

5 이종숙(2011),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연구』 45, 한국서양고전학회, p. 213.

6 이러한 판단은 「오자서열전」의 분석을 통해 입증될 것이다.

7 이에 관해서는 강정민(2010), 「한나 아렌트의 방법론—이론으로서의 ‘이야기하기」」,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727 참조.

8 『사기』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成一家之言.”

대한 앞선 시기의 사유와 통찰의 소산을 담아냈다. 따라서 「오자서열전」은 복수로 점철된 오자서 일대기에 대한 서사라는 각도에서뿐 아니라 복수론의 역사라는 각도에서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⁹ 이것이 이 글에서 「오자서열전」에 주목하는 세 번째 이유다.

필자는 두 편의 연작 논문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지닌 「오자서열전」을 복수론의 역사에 위치시켜 다시 읽어냄으로써 「오자서열전」을 전근대시기 중국 복수론의 중요한 텍스트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글은 그중 첫 번째 논문으로, 「오자서열전」의 복수론을 내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마천 이전 시기에 오자서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곧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는 까닭은 사마천이 「오자서열전」에서 오자서를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해냈는지를 살펴봄에 그것이 유용한 참조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간결한 서두를 제외하고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는 「오자서열전」의 내용 중 오자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섯 부분의 내용을 내재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4장은 이 논문의 결론으로 이상의 고찰이 오자서 복수 서사 읽기의 역사와 고대 중국 복수론의 역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짚어본다. 이러한 작업은 「오자서열전」에 투영된 사마천의 복수론을 읽어내는 데 초석이 될 것이고, 「오자서열전」 다시 읽기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2. 춘추전국시대 오자서 형상의 빛음 양상

“비간의 충성으로도 은나라를 존속시킬 수 없었고, 오자서의 지혜로도

9 「오자서열전」을 복수론의 역사라는 각도에서 읽은 작업은 김월희(2024), 「사마천의 ‘복수의 인문학’—『사기(史記)』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 다시 읽기(2)」, 『중국문학』 120, 한국중국어문학회 참조.

오나라를 존속시킬 수 없었다.”¹⁰ 전국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국책』 「진책」(秦策)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는 오자서가 전국시대 전 중국의 저명인사였음을 반증해준다. 은나라의 충신으로 대대로 충신의 상징처럼 운위되던 비간과 짝지어져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비단 전국시대뿐만이 아니었다. 춘추시대부터 오자서는 이미 그 이름이 널리 회자되었다. 전 중국의 화제였던 오나라 왕 합려(闔閭)와 부차(夫差), 월나라 왕 구천(句踐) 사이에 있었던 복수에 오자서가 깊이 간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자서 관련 기사가 춘추시대의 역사를 다룬 『춘추좌씨전』에 수차례 등장하며 춘추시대의 주요 인물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오자서에 대한 춘추전국시대의 평가에는 주로 ‘충’(忠)과 ‘지’(知), ‘미더움’(信), ‘의’(義), ‘효’(孝) 등의 덕목이 동원되었다. 이들 덕목을 오자서와 결합시킨 근거는 자신이 섬기는 군주를 패자로 만들고 국가의 부강함을 빚어낸 경세(經世), 억울하게 피살된 부형에 대한 복수, 부차에 대한 죽음을 무릅쓴 충간(忠諫)이라는 세 가지 행위였다. 초나라의 명문 세족 출신인 오자서는 부친과 친형이 초나라 평왕(平王)에게 무고하게 처형당하자 초나라를 탈출,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로 도망간다. 그곳에서 오자서는 오왕 합려에게 중용되었고, 오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강국 초나라를 격파함으로써 합려를 패자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오자서는 부친과 친형의 복수를 달성한다.¹¹ 이후 합려가 월왕 구천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자 아들 부차를 도와 월나라를 정벌하여 부차의 구천에 대한 복수를 성공시킨다. 그 결과 오나라는 남방의 강국 초나라와 숙적 월나라를 차례로 격파하며 남방

10 比干忠，不能存殷，子胥知，不能存吳。

11 이 글에서는 ‘복수의 달성’과 ‘복수의 완성’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복수의 달성은 오자서가 부친과 형의 원수인 초나라 평왕에 대한 복수를 실현함을 가리킨다. 곧 평왕의 봉분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어 그것에 300차례 체찍질을 가함으로써 부형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실현하는 과정까지를 가리킨다. 복수의 완성은 오자서가 자신의 사적 복수에 대한 정당화를 구현함을 가리킨다. 곧 자신이 오나라의 국력을 이용하여 사적 복수를 달성한 만큼 오나라에 대한 보답을 완수하는 과정까지를 가리킨다.

뿐 아니라 전 중원의 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오나라가 대를 이어 중원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데 오자서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런데 부차는 월나라를 굴복시킨 다음 자만에 빠졌고, 오자서는 지속적으로 부차에게 충간을 올렸지만 결국 자만에 빠진 부차의 오해로 인해 자결하게 된다. 이러한 오자서의 생애에서 세인들은 그의 빼어난 경세 역량, 부형에 대한 복수, 군주에 대한 충간에 주목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술한 바의 덕목으로 그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바는 오자서가 수행한 부형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근거로 내려진 평가는 효 정도였다는 점이다. 가령 『전국책』에는 “이윤은 … 걸왕으로부터 도망 나와 탕왕에게 가서 드디어는 명조의 전투에서 탕왕을 천자가 되게 하였다. 오자서는 초나라로부터 도망쳐 오나라에 가서 드디어는 백거의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에게 보복했다”¹²는 기술이 보인다. 여기서 명제상 이윤은 전쟁을 통해 탕왕을 천자로 만드는 공적인 성취, 곧 충의 덕목을 구현한 인물로, 오자서는 전쟁을 통해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 부자간의 효를 다한 인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춘추전국시대에는 오자서를 효자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충이나 지 등의 덕목으로 평가하는 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었다.¹³ 춘추전국시대에는 오자서를 그의 복수 행위와 연관하여 평가하는 관점이 주류가 아니었음이다.

이는 한대 이후 역대로 오자서를 주로 그의 복수와 연동하여 평가하던 양상¹⁴과는 궤를 달리한다. 물론 위의 ‘효자 오자서’라는 평가에서 보이

12 『전국책』 「언책」(燕策), “伊尹…逃桀而之湯, 果與鳴條之戰, 而以湯爲天子. 伍子胥逃楚而之吳, 果與伯舉之戰, 而報其父之讎.”

13 오자서를 효의 각도에서 포착하는 관점은 한대에 들어 충과 효를 함께 중시하는 유가의 영향 아래 오자서 평가의 주축이 된다. 그 결과 늦어도 전한(前漢) 전기에는 이미 오자서에 대한 서술에 충신과 효자라는 두 가지의 도덕적 평가가 병행되고 있었다. 결국 오자서는 충과 효의 두 측면에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 셈이다. 이에 관해서는 韓婷婷(2007), 「论传统道德伦理影响下的伍子胥故事」, 首都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p. 12, p. 15, p. 70 참조.

14 한대 이후 오자서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는 이은영(2007), 「오자서 이야기의 전승, 변화 그리고 영향: 원명칭 희곡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50, 한국중국어문학회; 전인초

듯이 그를 복수와 연동한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 예가 『춘추좌씨전』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오자서의 부친인 오사가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사건부터 오자서가 오나라로 도망간 사건, 오나라의 초나라 정벌 등 일련의 사실(史實)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점에서 『춘추좌씨전』이 오자서의 복수를 다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춘추좌씨전』의 서술 초점은 오나라, 초나라, 월나라 사이에 있었던 제후국 간의 상호작용의 역사에 놓여 있어 오자서의 복수는 이들 간 상호작용의 역사를 구성하는 사실의 하나로서 언급되고 있을 따름이다.¹⁵ 또한 오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군주의 명을 받들어 국사를 잘 처리하는 제후국의 역량 있는 신하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에는 오자서를 복수와 우선적으로 엮어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 점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장자』에서 오자서는 적어도 네 차례 언급되는데 모두 충성이나 뛰어난 덕목과 연계되었지 복수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사의 글인 『국어』 속 오자서는 심모원려한 책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형상에 서술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국책』에도 오자서의 복수 관련 서사 자체는 소략하게 언급되고 만다. 이는 대표적 복수 서사의 주인공인 예양(豫讓)이나 섭정(攝政), 형가(荊軻)에 대한 서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긴 분량인 데 비하면 분명히 특이하다고 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이를 오자서의 복수가 춘추시대에 있었던 일기에 전국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전국책』에 그것이 언급되어야 하는 필연성이 없었던 까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앞선 시대에 형성된 전범 또는 전형이라는 차원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환기되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오자서가 복수와 연관하여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¹⁶

(1998), 「오자서고사의 중국소설사적 전승과 변용 양상」, 『중국어문논집』 15,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등 참조.

15 邱立波(2005), 「汉代復讎所见之经、律关系问题」, 『史林』 第3期, p. 84.

16 이러한 경향은 사실 기록이 주된 목적인 텍스트에서만 목도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실(史實)의 교훈 등을 담론함이 주된 목적인 『춘추곡량전』(春秋穀梁传)에도 오자서의 복수가 주된 의론 거기로 활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춘추좌씨전』에서는 오자서의 복수가

반면에 오자서는 부처에 대한 충간과 관련하여 충신의 형상으로 곧잘 언급되었다. 곧 오자서가 충과 연동된 형상으로 수용되고 평가된 것인데, 이는 주로 군신 간의 윤리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춘추좌씨전』과 『국어』에는 “부형의 무고한 피살 → 오나라로 도망 → 복수(초나라 정벌) → 오·월 간 쟁투 → 충간의 지속 → 사사(賜死)”를 축으로 하여 오자서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¹⁷ 오자서를 충의 대표자로 제시함은 이 중 충간, 그러니까 오자서가 오왕 부처를 도와 월왕 구천을 대상으로 살부의 원수를 갚게 한 이후에 수행된 부처에 대한 충언을 근거로 내려진 평가이다. 이는 주로 오자서의 충성을 의심하는 부처의 어리석음과 병치되곤 한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대 어리석은 군주’라는 구도 아래에서 오자서를 평가하였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았다.

천자가 훌륭하고 신하가 현명함은 천하의 복이다. 제후가 밝고 신하가 충성되면 나라의 복이다.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성스러우며 지아비가 미덥고 아내가 곧으면 집안의 복이다. 비간이 충성스러웠지만 은나라를 보존하지 못했고 오자서가 지혜로웠지만 오나라를 보존하지 못했으며 신생이 효성스러웠지만 진나라가 미혹되고 혼란해졌다. 이처럼 충신과 효자가 있어도 나라가 망하고 혼란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밝은 군주와 어진 아버지가 못 돼 그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래서 천하는 그 군주와 아버지를 처형하고 치욕을 가하지만 그 신하와 자식은 안타까워한다.¹⁸

언급된 정공(定公) 4년 조의 관련 기술에도 『춘추곡량전』은 “제후는 필부를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諸侯不為匹夫興師)”는 이치를 언급하는 데 그친다.

17 오자서의 사적과 관련하여 『춘추좌씨전』과 『국어』의 기록을 토대로 함은 이 두 텍스트의 기록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료에 기초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다는 기존 평가에 근거한다. 기존 평가는 韓婷婷(2007), p. 5 참조.

18 『전국책』 「진책」(秦策), “主聖臣賢, 天下之福也. 君明臣忠, 國之福也. 父慈子孝, 夫信婦貞, 家之福也. 故此干忠不能存殷, 子胥知不能存吳, 申生孝而晉惑亂. 是有忠臣孝子, 國家滅亂何也. 無明君賢父以聽之, 故天下以其君父爲戮辱, 憐其臣子.”

오자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오자서는 그 임금에게 충성하였기에 온 천하가 그를 신하로 삼고자 했고, 효기는 그 부모에게 효성스러웠기에 온 천하가 그를 자식으로 삼고자 했다”,¹⁹ “충삼은 그 어버이에게 효성스러웠기에 천하가 그를 아들 삼기를 원했고, 자서는 그 임금에게 충성하였기에 천하가 신하 삼기를 원했으며, 정녀는 솜씨가 빼어났기에 천하가 아내로 삼고자 하였다”,²⁰ “충성스럽다고 반드시 쓰임 받는 것은 아니로다, 현명하다고 반드시 쓰이는 것은 아니도다. 오자서가 재앙을 만남이여, 비간이 식해로 담겨짐이여”²¹ 같은 평가에서도 목도된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사상 유파를 막론하고 공유되었다. 법가를 집대성한 한비자(韓非子)도 “옛날에 관용봉(關龍逢)은 걸왕을 설득하려다 사지가 훼손당했고 왕자 비간은 주왕에게 간언하다가 그 심장이 갈라졌으며, 오자서는 부차에게 충직하게 간하다가 축무검으로 자결하였다. 이 세 사람은 신하로서 충성되지 않음이 없었고 그 말도 타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럼에도 죽음이라는 재앙을 면하지 못했음은 군주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을 살필 줄 모르고 어리석음과 모자람이란 우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²²이라고 평가였고, 도가의 대표자인 장자(莊子)도 “군주 가운데 자기 신하의 충성을 바라지 않는 이가 없지만 충성스럽다고 하여 반드시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강물에 던져져 떠다니게 되었다”²³고 평가했다.

19 『전국책』 「진책」(秦策), “子胥忠其君, 天下皆欲以爲臣. 孝己愛其親, 天下皆欲以爲子.”

20 『전국책』 「진책」(秦策), “曾參考其親, 天下愿以爲子. 子胥忠于君, 天下愿以爲臣. 貞女工巧, 天下愿以爲妃.”

21 굴원(屈原), 『구장』(九章) 「섭강」(涉江), “忠不必用兮, 賢不必以. 伍子逢殃兮, 比干菹醢.” 여기서의 오자서가 충성과, 비간은 현명함과 짝지어졌다. 비간은 이렇듯 현명함, 달리 말해 지혜로움과 연동시켜 평가되기도 했다. 공자의 말로 제시된 “그대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쓰인다고 생각하는가? 왕자비간은 심장이 갈라지지 않았던가?(女以知者爲必用邪, 王子比干不見剖心乎)”[『순자』 「유좌」(宥坐)]와 같은 언급이 그 근거이다.

22 『한비자』 「인주」(人主), “昔夫龍逢說桀而傷其四肢, 王子比干諫紂而剖其心, 子胥忠直夫差而誅於屬樓. 此三者, 爲人臣非不忠, 而說非不當也. 然不免於死亡之患者, 主不察賢智之言, 而蔽於愚不肖之患也.”

충의 각도에서 오자서를 포착하여 평가하는 관점은 충과 인접한 윤리 덕목으로 오자서를 포착하여 평가하는 관점으로 변주되기도 하였다. 의로움이 그 대표적 예다.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너는 간하면 반드시 쓰이게 된다고 여기는가? 오자서는 소주성 동문 밖에서 몸이 찢기지 않았던가?”²⁴라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공자는 비간을 지혜로움과, 관용봉을 충성스러움과 짝지어 평가했다. 그런데 비간은 폭군의 대명사인 은나라의 주왕에게 죽기까지 간했던 인물이고, 관용봉은 또 다른 대표 폭군인 하나라의 걸왕에게 죽기까지 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오자서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군주에게 충간했던 인물로 꼽힌다. 사정이 이러한데 공자는 비간을 지혜에 배속하고 관용봉을 충성에 배치한 다음 오자서를 간함에 배속했다. 이는 오자서를 특별히 간함과 연결 짓고자 하는 의도의 소산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 간함에는 지혜로움, 충성스러움과 같은 덕목도 요구되지만 오자서에게서만 보이는 간함의 덕목을 간함의 본령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의 언급만으로는 오자서에 짝지어진 간함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순자』에 실려 있는 이 일화는 『한시외전』에도 내용을 달리하여 실려 있고

23 『장자』 「외물」(外物), “人主莫不欲其臣之忠, 而忠未必信, 故伍員流于江.” 한편 「도척」(盜跖) 편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충신으로는 왕자비간과 오자서만 한 이가 없는데 오자서는 강물에 던져져 가라앉았고 비간은 심장이 갈려졌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충신이었지만 결국에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世之所謂忠臣者, 莫若王子比干伍子胥. 子胥沈江, 比干剖心, 此二者者, 世謂忠臣也, 然卒為天下笑)”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오자서의 충성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태도, 그러니까 충이라는 인위적, 세속적 윤리에 얽매어 이를 초극하지 못하여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자서가 충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다음의 비판도 참조할 만하다. 『한시외전』(韓詩外傳) 권4, “큰 충성이 있고 다음 등급의 충성이 있으며, 아래 등급의 충성이 있고 나라의 도적이 있다. … 간언으로 군주를 비판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를 일러 아래 등급의 충성이라고 한다. … 부차에게 있어서 오자서는 아래 등급의 충성이다.(有大忠者, 有次忠者, 有下忠者, 有國賊者. … 以諫非君而怨之, 是謂下忠也. … 子胥之於夫差, 可謂下忠也.)”

24 『순자』 「유좌」, “女以諫者為必用邪. 吳子胥不磔姑蘇東門外乎.”

그중 오자서를 평가한 대목은 “그대는 의로운 자는 들어준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오자서는 왜 눈이 파여 오나라 도성의 동문에 걸렸겠는가?”²⁵이다. 여기서 오자서는 『순자』에서와 달리 의로움이라는 덕목과 짝지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한시외전』은 『순자』를 많이 참조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순자』에서 오자서에게 짝지은 간함의 실체가 의로움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추론은 『주례』의 보씨(保氏) 조에서 “보씨는 왕의 잘못을 간함을 담당한다”는 구절에 대하여 정현(鄭玄)이 “간함이란 예의로써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주석²⁶한 데서 보이듯이, 간을 ‘바로잡다[正]’, 곧 올바른이라는 덕목과 짝지은 관념²⁷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충성만큼이나 오자서에게 많이 내려진 평가는 그의 빼어난 경세 역량과 연관된 것이었다. 가령 “옛날에 관용봉은 목이 잘리고 왕자비간은 가슴이 갈라졌으며, 장홍은 배가 찢겼고 오자서는 강물에 던져졌다. 그러니 이 네 사람은 뛰어났지만 죽음을 면치 못했다”²⁸와 같은 평가가 그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비간-충’, ‘오자서-지’의 형태로 오자서를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활용한 것도 경세 차원에서의 평가였다.²⁹ 이는 전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전국책』, 『국어』와 같은 기사(紀事)의 텍스트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서에서도 널리 목도된다. 주로 내정, 외교 모두에서 오자서의 심모원려한 책략 등을 상찬하면서 그러한 오자서 덕분에 오왕 합려가 패자가 될 수 있었고 오나라는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25 『한시외전』 권7, “子以義者為聽乎, 則伍子胥何為抉目而懸吳東門.”

26 『주례』 보씨, “保氏掌諫王惡”에 대한 정현 주, “諫者, 以禮義正之.”

27 간의 본령을 바름잡다[正]로 보는 관점은 이후 간의 제일의(第一義)로 자리 잡는다. 한대를 이은 위(魏)나라 때 나온 자전인 『광아(廣雅)』의 “간은 ‘바로잡다’이다(諫, 正也)”라는 풀이가 대표적 예이다.

28 『장자』 「거협(胠篋)」, 昔者龍逢斬, 比干剖, 萇弘脛, 子胥靡, 故四子之賢而身不免乎戮. 이 언급은 오자서가 뛰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아니라, 오자서가 뛰어난데 얽매어 있다 보니 죽음이라는 해를 당하게 됐다는 측면에서의 비판이다. 곧 도가의 지향을 따라 ‘뛰어난대 줄릴함’과 같은 인위적 가치판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29 주 10) 참조.

제나라 환공은 관중과 포숙아에게 물들었고, 진나라 문공은 구범과 고언에게 물들었으며, 초나라 장왕은 손숙과 심윤에게 물들었고 오나라 합려는 오자서와 문지에게 물들었으며, 월나라 구천은 범려와 대부 종에게 물들었다. 이 다섯 군주는 물든 바가 합당하였기에 제후들 가운데 패자가 될 수 있었고 공적과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³⁰

이렇게 오왕 합려가 오자서 덕분에 패자가 될 수 있었다는 평가는 오자서를 국가 존망의 관건으로 꼽는 평가로 이어졌다. 가령 “오나라에는 오자서가 있었지만 쓰임 받지 못한 탓에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도리를 등지고 현명한 이를 잃었던 까닭이다”³¹라든지, “오자서가 사태의 변화 이치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간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 오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그 화가 선왕인 합려에게 이르렀다”³² “오자서는 … 오나라 시장에서 걸식하였지만 마침내는 오나라를 흥성케 했고 합려를 패자가 되게 하였다”³³ 등이 그 예이다. 그렇다고 긍정적 평가만 존재한

30 『목자』 「소염」(所染), “齊桓染于管仲鮑叔, 晉文染于舅犯高偃, 楚庄染于孫叔沈尹, 吳闔閭染于伍員文義, 越句踐染于范蠡大夫種. 此五君者所染當, 故霸諸侯, 功名傳于後世.” 한편 군주와 신하 사이의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같이 변주되기도 한다. “신농씨는 실저를, 황제는 대요를, 진옥은 백이보를, 제곡은 백초를, 요임금은 자주지보를, 순임금은 허유를, 우임금은 대성지를, 탕왕은 소신을, 문왕과 무왕은 강태공과 주공 단을, 제 환공은 관중을, 진 문공은 구범과 수희를, 진 목공은 백리해와 공손지를, 초 장왕은 손숙오와 심윤무를, 오왕 합려는 오자서와 문지의를, 월왕 구천은 범려와 대부 종을 스승으로 모셨다.(神農師悉諸, 黃帝師大撓, 帝顓頊師伯夷父, 帝嚳師伯招, 帝堯師子州支父, 帝舜師許由, 禹師大成贊, 湯師小臣, 文王武王師呂望周公旦, 齊桓公師管夷吾, 晉文公師咎犯隨會, 秦穆公師百里奚公孫枝, 楚莊王師孫叔敖沈尹巫, 吳王闔閭師伍子胥文之儀, 越王句踐師范蠡大夫種.)”-『여씨춘추』 「맹하기」(孟夏紀) 「존사」(尊師). 여기서 오자서는 합려가 폐업을 달성한 제의 환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진의 목공, 월왕 구천과 나란히 언급될 수 있도록 해준 합려의 스승으로 규정되었다.

31 『순자』 「군자」(君子), “吳有伍子胥而不能用, 國至于亡, 倍道失賢也.”

32 『여씨춘추』 「귀직론」(貴直論) 「지화」(知化), “子胥非不先知化也, 諫而不聽, 故吳為丘墟, 禍及闔廬.” 여기서 화가 선왕 합려에 이르렀다고 함은 종교가 파괴되어 합려의 제사가 지내지지 못했음을 뜻한다.

것은 아니다. 오자서는 빼어난 역량을 갖췄으나 오왕 부차같이 현명치 못한 군주를 만나게 된 비운의 인물로, 나아가 군주를 가려 섬기지 못한 어리석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다만 오자서의 빼어난 경세 역량에 대한 평가는 오자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맥락에서도 여전히 내려진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오자서의 말이 합려에게서 받아들여졌던 까닭에 합려는 멀리 초나라의 도읍 영을 점령할 수 있었다. 부차는 오자서의 말을 옳다고 여기지 않아서 그에게 말가죽 자루를 내렸고 그의 시체를 장강에 띄웠다. 그렇게 오왕 부차는 선대의 의론으로 공을 세울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자서를 수장시키기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며, 오자서는 합려와 부차의 함량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일찍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강에 수장되기까지 생각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³⁴

부차의 그릇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합려와 같을 것으로 보았기에 오자서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오자서가 초나라 정벌을 바탕으로 합려가 패자가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언급이 함께 나온다.

이렇듯 춘추전국시대의 오자서 형상은 긍정이든 비판이든 오자서의 충간과 빼어난 경세 역량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단적으로 오자서는 출중하고 빼어나며 충성되고 바른 신하의 형상으로 주로 수용되었다.³⁵ 『춘추좌씨전』에서 오나라의 초나라 정벌을 기록하면서 오자서의 복수가 아닌 다른

33 『전국책』 「진책」(秦策), “伍子胥…乞食於吳市, 卒興吳國, 闔廬爲霸.”

34 『전국책』 「연책」(燕策), “臣聞善作者, 不必善成, 善始者, 不必善終. 昔者, 五子胥說聽乎闔閭, 故吳王遠迹至於郢. 夫差弗是也, 賜之鴟夷而浮之江. 故吳王夫差不悟先論之可以立功, 故沈子胥而不悔. 子胥不蚤見主之不同量, 故入江而不改.”

35 张伶俐(2010), 「『史记』與『汉书』中的復讐事象对比研究」, 华中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p. 83.

복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³⁶도, 『춘추공양전』에서 같은 사적을 기록함에 오자서의 복수는 언급되지 않고 점령국인 오나라 군주와 대신들에 의한 초나라 유린 행위만 기록된 것도 이러한 경향의 소산이었다. 결국 오자서를 복수와 주되게 연계하여 형상을 빚어내고 그를 소유하는 것은 한대에 들어 본격화되었던 것이며, 사마천의 「오자서열전」은 그러한 흐름 위에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3. 「오자서열전」 다시 읽기

빠어난 경세 역랑이라는 차원에서 수행된 오자서에 대한 평가는 한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가령 『사기』 「몽염열전」(蒙恬列傳)에는 진(秦)나라 목공(穆公)과 소양왕(昭襄王), 초나라 평왕, 오왕 부차를 거론하면서 이 네 군주 모두 빠어난 신하를 부당하게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천하로부터 비난을 들었고 현명하지 못한 군주로 나쁘게 알려져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여기서 부차가 죽인 신하로 오자서가 언급되었으니 춘추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오자서를 국가의 동량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전한 시기에는 지속되었다. 『한시외전』에는 “결왕은 관용봉을 죽이고, 주왕은 왕자비간을 죽임으로써 천하를 잃었다. 오나라는 오자서를 죽임으로써, 진나라는 설야를 죽임으로써 그 나라를 멸망케 했다.”³⁷ “오왕 부차는 무도하여 저갓거리의 온 사람을 몰아 합려를 장사지

36 『춘추좌씨전』 정공 4년 조에서 오자서의 사적 복수를 기술할 때 다음 두 가지 사건이 강조되어 있다. 하나는 오나라가 초나라의 도움을 점령하자 초나라 소왕이 소국 운(郟)으로 피신한다. 그러자 운을 다스리던 투신(鬪辛)의 동생 투회(鬪懷)는 살부의 원수라는 점에서 소왕을 죽이려고 하고 투신은 이를 말렸던 일이다. 다른 하나는 오자서의 지기 신표(申包胥)가 조국에 대한 복수의 정당성을 두고 나는 대화와 신표(申包胥)가 조국을 배신한 오자서에게 복수하기 위해 진(秦)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해 오는 일이다.

37 『한시외전』 권1, “杀关龙逢, 紂杀王子比干, 而亡天下. 吴杀子胥, 陈杀泄冶, 而灭其国.”

내게 하였다. 그럼에도 그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오자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자서가 죽자 월왕 구천이 그를 정벌하고자 했다. 범려가 ‘오자서의 계획이 아직도 오왕의 가슴에서 잊히지 않았습시다’라고 간하자, 오자서가 죽은 뒤 3년이 지난 후에야 월나라는 오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다³⁸와 같은 서술이 실려 있고, 전한 말엽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지공」(至公) 편이나 「선모」(善謀) 편 및 그의 『신서』(新序)의 여기저기³⁹에는 오자서를 빼어난 경세 역량을 발휘한 이로 서술한 대목이 보인다. 한대에 들어서도 오자서를 복수의 달인이 아니라 치국의 달인으로 보는 전대의 평가가 지속되었음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오자서를 복수와 본격적으로 연관 지은 서술이 출현하였다. 가의(賈誼)의 『신서』(新書)가 대표적 예다.⁴⁰ 한대 초엽 인물인 가의는 ‘귀가 마비되다’는 뜻의 「이비」(耳痺) 편에서 오자서의 복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도망 나와 오나라로 간 뒤 합려에게 중용되기 위해 행한 일련의 활동, 합려에게 중용되어 나라를 정의롭고 부강하게 다스린 것을 부친의 복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38 『한시외전』 권8, “吳王夫差為無道，至驅一市之民葬閭閻。然所以不亡者，有伍子胥之故也。胥以死，越王勾踐欲伐之。范蠡諫曰，‘子胥之計策，尚未忘於吳王之腹心也。’子胥死後三年，越乃能攻之。”

39 이를테면 「잡사2」(雜事二)에서는 오자서를 등용한 합려는 패자가 되었고 그를 내친 초는 크게 패하였다고 하면서 오자서를 관중 등과 병렬시키며 높이 평가하였다. 「잡사3」에서는 오자서를 따른 합려는 초나라를 정벌하였지만 오자서를 따르지 않은 부차는 그렇지 못했다고 평했다. 또한 「잡사5」에서는 주 30)에 소개한 『여씨춘추』의 언급을 인용하며 “오왕 합려는 오자서와 문지의에게 배웠다(吳王闔閭學伍子胥文之儀)”고 한 후 “이들 모두는 성왕이 배운 바이다(此皆聖王之所學也)”라고 함으로써 오자서의 학문을 태공 망, 주공 단, 관중 등의 학문과 같은 급으로, 그러니까 군주가 성왕이 되고자 하면 배워야 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였다.

40 오자서 복수 서사를 체계화 갖추어 기술한 텍스트는 가의의 『신서』가 최초는 아니다. 전국시대 말엽에 나온 『여씨춘추』 「효행람」(孝行覽) 「수시」(首時) 편에는 초나라에서 도망쳐 오나라에 도착한 오자서가 합려에게 유세하여 합려의 신임을 얻는 과정, 복수를 위하여 받을 갈머 7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모습, 합려가 오나라 왕이 된 다음 정사를 잘 다스리는 모습, 초나라를 정벌하여 원수를 갚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서술했다. 그런 다음 초나라를 정벌한 오자서가 한 행위, 그러니까 수십 만 명의 군사를 죽이고 초나라 창고의 온갖 재물을 파괴하며 초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보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서술했다. 뒤이어 오왕 부차가 월왕 구천에게 행한 복수를 도왔던 일, 월나라 정벌 후 부차에게 구천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간언한 일, 부차가 자신의 간언을 듣지 않아 결국 오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오자서가 자결한 일, 구천이 절치부심하여 부차에게 복수한 일을 차례로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가의는 오자서의 복수 행위에 대하여 “쌓였던 울분을 터뜨렸다. 험악한 말들을 내뱉으며 속으로 죽기까지 하리라고 마음먹고는 온 나라의 힘을 동원하여 초나라를 정벌하였다”, “오자서는 쌓였던 울분을 풀고 합력을 도와 심히 잔혹하게 굴었다”고 서술하였다.⁴¹ 곧 오자서가 살부의 원수를 갚는다는 사적 복수 행위에 자신이 섬기는 오나라의 국력, 그러니까 공적 역량을 다 동원하였고, 오랜 세월 쌓였던 원한을 아주 잔인하게 풀었다고 함으로써 ‘복수심에 휩싸인 오자서’라는 형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자서가 부차에게 버림받아 죽고 눈이 뽑히고 시신이 자루에 담겨 강물에 내던져지는 신세가 된 데 대하여 “간악한 마음을 품고 잔혹한 짓을 하고 철저히 보복한다고 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니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친 것”⁴²이라고 평했다. 아무리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부친의 복수를 행한다고 해도 복수에 눈이 멀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자신의 복수와 무관한 이들을 해쳤으며 나라의 보물과 재화를 함부로 훼손하는 등의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삶의 종말이 처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선 시기에 주류로 형성되었고 동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던 오자서의 경세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복수를 위한 진실하지 못한 행위로 뒤집어졌고, 오자서의 위인됨도 잔인하고 교활한 이로 전복되었다. 오자서에 대한 평가가 복수를 중심으로 재편되

41 원문은 순서대로 “忿心發怒，出凶言，陰必死，提邦以伐楚”，“子胥發鬱冒忿，輔闔閭而行大虐”이다.

42 懷賊行虐，深報而殃不辜，禍至乎身矣.

면서 사적 복수에 매몰된 부정적 형상으로 재구성되었음이다.

「오자서열전」은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출현하였다. 사마천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오자서 복수 서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여기에 국가 동량으로서의 오자서 형상을 버무려 넣었다. 복수를 수행하는 오자서 형상을 복수에 매몰되어 공사를 구분 못하고 잔인함에 오염되어 자신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부정태가 아닌,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공적 이로움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수를 부차적으로 곁들여 완수하는 긍정태로 제시했다. 또한 사마천은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에 꺼내어 300대의 채찍질을 가했다고 함으로써 가의의 서술에서 부각되었던 잔인함이란 모티프도 끼워 넣었고, 이를 통해 오자서의 복수 염원이 얼마나 컸는지, 사무친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환기하였다. 그러는 한편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된 복수에 대한 인문적 대응의 소산을 복수 서사에 녹여 놓았다. 물론 오자서 복수를 나름 체계를 갖추어 서술한 『여씨춘추』나 『신서』의 서술에서도 이러한 바의 추출이 가능하지만 「오자서열전」은 이들을 포함하여 앞서 수행된 그 어떤 오자서 복수 서사에 비해서도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지닌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자서열전」은 크게 둘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부분에서는 오자서의 평왕에 대한 복수를 주축으로, 오자서가 왜 복수에 나서게 되었는지,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 복수를 어떻게 행했는지 등이 서술되어 있다. 둘째 부분의 서술은 오나라 왕 부차에게 충간을 다하는 오자서의 모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오자서가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 바탕이 되었던 오나라에 대하여 보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둘째 부분은 첫 부분에서 수행한 복수와 연속된 서사이다. 곧 사마천은 원수를 갚는 행위인 보복은 원수를 갚는 데 빚진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답까지 이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았던 것이다.⁴³

이렇게 크게 평왕에 대한 복수와 오나라에 대한 보답의 두 부분으로 나

뒤볼 수 있는 「오자서열전」은 오자서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그의 조상이 직간(直諫)으로 초나라에서 명성이 높았고 그 후손들도 명성이 높았다는 내용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오자서 가문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이전의 기록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마천이 이 대목을 왜 서술했을까 하는 물음을 야기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의 서술이 나머지 「오자서열전」의 서술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분석했을 때 이 대목은 첫째, 부형의 무고한 죽음이 없었다면 오자서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환기해준다. 이는 오자서가 복수의 삶을 산 것이 자의와 무관하게 피치 못하게 복수로 내몰린 삶이었음과 연동되면서 부형의 무고한 죽음이 오자서에게 무척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었음을 일러준다. 부형의 무고한 죽음이 없었다면 오자서는 명문세가의 기린아로서 순탄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개연성이 매우 컸음을 그의 가문에 대한 간결한 소개만으로도 너끈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상이 직언으로 높은 명성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후손들도 초나라에서 명성이 높았다는 서술은 뒷부분의 오자서 부친 오사(伍奢)가 초나라 평왕에게 직언하는 대목, 간신 비무기(費無忌)가 오자서 형제를 높이 평가하는 대목, 훗날 부차에게 죽기까지 충간하는 오자서의 행위 등과 연동되면서, 오자서가 그러한 집안 분위기의 훈도 아래 성장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뛰어남을 갖추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을 환기해준다. 곧 사마천은 「오자서열전」의 서두에서 오자서의 강직하고 굴하지 않는 충간에는 직언을 중시한 집안 내력의 영향이 있었음을 환기함으로써 오자서 일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직언-충간’을 축으로 일관되게 꿰어냈던 것이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오자서 소개를 한 후 사마천은 바로 오자서가

43 사마천뿐 아니라 고대 중국인은 원한만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전거는 다음과 같다. 『국어』 「진어」(晉語), “시혜는 두루 퍼기가 어렵고, 수혜는 보답기 어렵다. 두루 공평하거나 보답지 않으면 결국 서로 원수가 된다(惠難徧也, 施難報也. 不徧不報, 卒於怨讎.)”

복수에 나서게 된 전후 사정과 그 이후의 삶을 서술하였다. 그런 다음 오자서 복수 서사와 연관되어 있는 백공(白公) 승(勝)의 복수 서사를 짚막하게 기술하고, 복수 차원에서 내린 오자서에 대한 총평을 제시하였다. 이 중 오자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술은 총평을 포함하여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총평을 제외한 네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나라 평왕에게는 이름이 건인 태자가 있었다. ~ 초나라 왕은 오사와 오상을 함께 죽였다.(楚平王有太子名曰建. ~ 楚并殺奢與尚也.)”

- 비무기가 음모를 꾸며 건의 배필로 예정된 진(秦)나라 공주를 평왕의 후첩으로 삼게 함.
- 비무기는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건을 역모로 무고하였고 평왕은 건을 제거하고자 함. 이에 건의 스승인 오사가 평왕에게 그 부당함을 직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건은 송나라로 도망치고 오사는 투옥됨.
- 비무기는 오사의 뛰어난 두 아들(오상, 오자서)을 제거함으로써 후환을 없애고자 하여 아버지의 구명을 핑계로 두 아들을 소환함. 오상은 소환에 응하여 부친과 함께 죽기로 하고, 오자서는 무고한 부형의 죽음을 복수하기로 하여 초나라를 탈출, 송나라에 도착하여 건을 섬김.

② “오자서는 송나라에 도착했다. ~ 오나라 왕은 오자서로 응진케 하여 예장에서 초나라 군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거소를 빼앗았다.(伍胥既至宋. ~ 吳使伍員迎擊, 大破楚軍於豫章, 取楚之居巢.)

- 오자서 일행은 송나라의 정변을 피해 정나라로 옮겨 갔지만 태자 건이 잘못 처신한 까닭에 정나라에게 죽임을 당함. 오자서는 건의 아들 승(勝, 훗날의 백공)을 모시고 오나라로 도망침.
- 오나라와 초나라 접경지 관문인 소관(昭關)의 관문지기에게 쫓기면서 승과 헤어짐. 오자서는 한 어부 덕분에 강을 건너 오나라에 이룸. 이때 오자서는 어부에게 차고 있던 보검을 주며 감사를 표했지만 어부는 그대에게 걸린 포상이 훨씬 큰데 칼을 받아 무엇 하겠냐며 거절함. 오

자서는 오나라 도착 후 병이 나기도 했고, 걸식도 하며 연명함.

- 오나라 공자 광[光, 훗날의 합려(闔閭)]을 통해 오왕 요(僚)에게 등용됨.
 - 오나라와 초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남. 요는 광을 시켜 대적계 하여 승리를 거둠. 오자서는 초나라를 정벌할 때라고 진언하였지만, 광이 요에게 이는 오자서가 부형의 복수를 위해 올린 계략에 불과하다고 진언함으로써 초나라 정벌이 무산됨.
 - 오자서는 합려를 돕기로 마음을 바꾸고는 그를 도우며 건의 아들 승을 다시 모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림.
 - 초 평왕이 사망하고 그와 진나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소왕(昭王)이 즉위함.
 - 광은 전저(專諸)를 시켜 요를 암살한 후 국정을 장악, 왕위에 오름.
 - 왕이 된 합려는 초나라를 정벌하려 했지만 손무(孫武)가 때가 아니라고 간하자 그만둠.
- ③ “합려 9년, 오왕 합려가 오자서와 손무에게 말했다. ~ 이때에 오왕은 오자서와 손무의 계략으로 서쪽으로 강한 초나라를 격파하고 북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제압하였고 남으로 월나라를 굴복시켰다.(九年, 吳王闔廬謂子胥孫武. ~ 當是時, 吳以伍子胥孫武之謀, 西破彊楚, 北破齊晉, 南服越人.)
- 합려는 초나라 정벌에 나서서 도읍 영(郢)을 점령함. 초 소왕은 소국 운(鄔)나라로 도망감.
 - 운나라 제후 투신(鬬辛)의 동생인 투회(鬬懷)가 평왕이 아버지를 처형했으니 그 아들 소왕을 죽여도 된다며 살부의 원수에게 보복하고자 함. 이에 투신이 소왕과 함께 소국 수(隨)나라로 도망갔고, 수나라는 소왕을 넘기라는 오나라의 요구를 거부함.
 - 오자서의 지기 신포서는 오자서가 평왕의 시신을 꺼내어 300대의 채찍질을 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오자서에게 복수가 너무 심하다며, 과거에 평왕을 섬겼음에도 그 시신을 욕되게 함은 천리에 크게 어긋난 행위라며 꾸짖음. 이에 오자서는 “해는 지고 있고 갈 길

이 멀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함.

- 신포서는 진(秦)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7일 주야를 궁중에서 울부짖었고, 이에 감복한 진나라는 구원병을 파견하여 오나라의 군대를 격파함.
- 합려의 동생이 왕위를 찬탈하자 합려는 회군하여 왕위를 되찾음. 이후 오자서와 손문의 계책으로 초를 격파하고 제와 진(晉)을 제압했으며 월을 굴복시킴.

④ “그 4년 후 공자가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다시 5년 후 월나라를 정벌하였다. ~ 9년 후 월왕 구천이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오왕 부차를 죽였으며 태재 백비(伯嚭)를 자기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바깥으로 부터 큰 뇌물을 받으며 구천 자신과 결탁하였다는 이유로 죽였다.(其後四年, 孔子相魯. 後五年, 伐越. ~ 後九年, 越王句踐遂滅吳, 殺王夫差, 而誅太宰嚭, 以不忠於其君, 而外受重賂, 與己比周也.)

- 합려가 월나라를 공격했으나 구천에 패배하여 전사함. 합려는 아들 부차에게 복수를 명함. 이에 부차는 2년 후 구천을 무찌름으로써 복수를 완수함. 구천은 부차에게 항복하며 목숨을 구걸함. 오자서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간했으나 부차는 구천의 구걸을 받아들여 강화하고 귀국함.
- 부차가 제나라를 공격하고자 하자 오자서는 월나라부터 멸망시켜야 한다고 간함. 부차를 이를 듣지 않고 제나라 정벌에 나서서 제를 크게 무찌름. 이후 부차는 오자서의 계략을 더욱 소홀히 대함.
- 몇 년 후 부차는 다시 제나라를 정벌하고자 했고 오자서는 다시 월나라부터 멸망시킬 것을 간함. 부차는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오자서를 제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함. 오자서는 아들에게 부차가 자신의 계략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오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그 와중에 목숨을 잃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 후 아들을 제나라로 데려가 유력 집안인 포(鮑) 씨 집안에 맡김.

- 이 사실을 안 백비는 부차에게 오자서가 배반했다고 고함. 부차는 촉 루검을 오자서에게 보내 자결을 명함. 부차는 자결하면서 자신의 눈을 오나라 도성의 관문에 걸어놓으라는 등의 유언을 남김. 부차는 오자서의 시체를 말가죽에 넣어 강물에 던짐.
- 부차는 오자서를 죽인 후 제나라 정벌에 나섰지만 실패함. 몇 년 후 황지(黃池)에서 제후들을 불러 대대적으로 회맹하느라 도움을 비움. 이때 구천이 오나라를 기습하여 태자 등을 죽였고 부차가 강화를 청하자 구천은 회군함. 그로부터 십여 년 후 구천은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 시킴.

①부분은 오자서의 복수 서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한 대목으로, 이를 통해 오자서가 복수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니까 그에게 복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환기하였다. 아울러 평왕이 복수 대상이 된 까닭도 환기하였다. 곧 아들의 예비 신부를 자신이 후첩으로 삼는 패륜의 자행, 참소의 진위를 변별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그대로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거듭 범함, 후환이 두려워 군주임에도 오사의 두 아들도 함께 죽이려 한 무도함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 대목에서 이러한 모든 일을 꾸미고 자행한 주범이 비무기임을 명확히 하였다. 진나라 공주를 후첩으로 삼게 한 일, 태자 건을 무고한 일, 오사의 빼어난 아들 둘을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획책한 일의 주체는 모두 비무기였고, 사마천은 이를 비무기를 주어로 하는 문장으로 분명하게 짚었다. 이렇게 보면 오자서의 복수 대상은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는 비무기여야 한다.⁴⁴ 모든 일을 비무기가 꾸몄고, 평왕은 그저 함량 미달의 못난 군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오자서는 복

44 적잖은 조선의 지식인은 이 점을 근거로 오자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는 윤세순(2013),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 『민족문화사연구』 51,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pp. 211-213 참조.

수 대상을 비무기가 아닌 평왕으로 설정하였고 끝내 이를 달성했다. 오자서가 비무기를 복수 대상으로 삼았다면, 가령 “자기가 섬겼던 군주와 조국을 대상으로 한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같은 시비가 아예 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자서가 평왕을 복수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까닭에 사마천은 오자서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사마천이 “어떻게 군주와 조국에 복수할 수 있는가?”와 같은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었다. 이에 사마천은 태자 건이 죽음을 피해 송나라로 도망했고 오자서도 송나라로 도망쳐 건을 섬겼다고 서술함으로써 오자서의 복수가 초나라에 대한 불충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고, 평왕을 복수 대상으로 설정한 오자서의 행위를 최대한 정당화하고자 했음이다. 초나라 왕위 계승의 정통성은 건에게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마천은 아무 죄도 없는 오사의 아들 형제를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자는 비무기의 모략을 평왕이 받아들여 이를 실행에 옮겼음을 서술함으로써 평왕이 정의롭지 못함을, 곧 그에게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①부분에는 오자서와 형 오상 사이의 대화가 실려 있다. 형 오상은 평왕이 부친의 구명을 빌미로 형제를 소환하자 이에 응하고자 한다. 이때 오자서는 형에게 “초나라 왕이 우리 형제를 소환한 것은 아버지를 살려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중 탈출한 자가 생겨 후환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질 삼아 우리 두 아들을 거짓으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부자가 함께 죽게 될 터이니 아버지 죽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게 된다면 원수에게 보복도 못하게 될 따름이니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 힘을 빌려서 아버지의 치욕을 씻어냄만 못합니다. 모두 죽는 건 할 짓이 못 됩니다.”⁴⁵라고 말한다. 그러자 오상은 역할 분담을 제안하여 자신은 소환에 응해 부친과 함께 죽음으로써 부친에 대한 효를 다하고 오자서더러는

45 楚之召我兄弟，非欲以生我父也，恐有脱者后生患，故以父为质，诈召二子。二子到，则父子俱死，何益父之死。往而令雠不得报耳，不如奔他国，借力以雪父之耻。俱灭，無为也。

도망가서 부친의 무고한 죽음에 복수하라고 한다. 이렇게 사마천은 오자서가 복수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오자서가 주도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각하기 위해 오사의 두 아들에 대한 평을 직접인용으로 기입하였다.⁴⁶ 그런데 이는 『춘추좌씨전』의 서술과는 정반대된다. 소공(昭公) 20년 조를 보면 형 오상이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⁴⁷ 이에 따르면 오자서가 형 오상의 지도를 받아 복수를 담당한 것이 된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기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오자서에게 복수의 주도자라는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 사마천은 『춘추좌씨전』의 서술을 뒤집어 오자서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서술했던 것이다.⁴⁸ 후술하겠지만 이는

46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상은 사람됨이 어질어 부르면 반드시 올 것이지만 자서는 사람됨이 굳세고 모질며 비난을 견뎌낼 수 있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서는 오면 함께 사로잡힐 것을 알 터이니 이런 형세로 보건대 반드시 안 올 것입니다.(尚為人仁, 呼必來. 員為人剛戾忍詬, 能成大事. 彼見來之并禽, 其勢必不來.)” 한편 여기서 서술된 오자서의 성품은 큰 고통과 비난, 곡해 등을 이겨내고 대의를 실현하는 데, 사마천이 총평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소의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명성이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자질이면서 동시에 대의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잘해야 ‘의협’(義俠) 정도 되는 성품이다. 한편 고대 중국의 기사(紀史) 글쓰기에서 대화의 직접인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서술 기법이다. 구두전승의 신뢰성을 신봉한다고 해도 수십, 수백 년 전 사건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인용하는 것은 그 사실 여부가 문제시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접인용을 함은 이를 통해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실제로서 체헹케 한다”는 기사 글쓰기의 기본 지향 구현의 한 서술 전략의 소산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직접인용한 대목은 그 서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7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너는 오나라로 가거라, 나는 죽으러 가겠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나는 너끈히 죽을 수 있고 너는 너끈히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을 듣고 달려가지 않을 수는 없으며, 피붙이가 살육당했는데 보복하지 않을 수도 없다. 죽음으로 달려들어 아버지를 면케 할 수 있는 것은 효이고 공적을 헤아려 행하는 것은 어짊이며, 임무를 가려 뽑아 매진하는 것은 지혜로움이고 죽을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음이 용기이다. 아버지도 버릴 수 없고 명예도 폐할 수 없음이니 너는 힘껏 노력하라. 각자의 길로 나아감이 나오리라.(尔適吳, 我将归死. 吾知不逮, 我能死, 尔能报. 闻免父之命不可以莫之奔也, 亲戚为戮不可以莫之报也. 奔死免父孝也, 度功而行仁也, 择任而往知也, 知死不辟勇也. 父不可乘, 名不可废. 尔其勉之, 相从为愈.)”

48 사마천에 앞서 오자서 형제간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오자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

사마천이 오자서를 ‘복수의 달인’으로 새롭게 형상화하고자 한 서술 의도의 발현이기도 하다.

②부분은 다시 둘로 나뉘볼 수 있다. 전반부에는 오자서가 송나라로 도망쳤다가 다시 정나라를 거쳐 오나라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 사이에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 비참했던 처지가 서술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오나라에 쓰임을 받게 된 오자서가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길항을 활용하여 복수를 수행하고자 했지만 공자 광의 반대로 무산된 일, 이 일을 계기로 광에게 야심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를 도왔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중용된 일이 기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②부분은 오자서가 초나라 탈출 후 복수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마천은 오자서가 복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제시하였다. 곧 “오나라의 국력을 활용하여 복수한다”와 “공적 이로움의 실현을 사적 복수의 실행보다 우선으로 한다”, “때가 될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준비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와 연관된 서술이 ②부분에는 두 차례 등장한다. 하나는 오자서가 오왕 요에게 초나라를 정벌하자고 진언했지만 광의 방해로 무산된 일이다. 이때 오자서는 몰려나 태자 건의 아들 승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린다. 다른 하나는 광이 왕이 된 후 오자서를 중용하였고 초나라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 승기를 잡았지만 손무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좀 더 기다리자고 함으로써 초나라 정벌이 또 다시 무산된 일이다. 두 차례 모두 오나라 국력을 활용하고자 시도했지만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되었는데, 그때마다 오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자신의 사적 복수를 오나라의 국익 신장이라는 공적 이로움의 실현보다 앞세우지 않았음이다.

한편 오자서가 태자 건의 아들 승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서술에서는 불충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오자서가 일관되게 실천하였음이 환기된다. 소관에서 관문지기에게 쫓길 때 강을 건너게 해준 어

으로 서술된 텍스트로는 가의의 『신서』 「이비」 편을 들 수 있다.

부와 나는 대화⁴⁹에서는 오자서의 선택을 어부와 같은 평민들도 지지하였음이 환기된다. 오자서를 잡아 관에 넘기면 큰 재물과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음에도 오자서의 도망을 도왔음을 그 자체로 오자서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이러한 고사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오자서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다른 문헌에는 서술되어 있는, 오자서가 빨래터 아낙에게 구걸한 고사를 사마천이 서술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고사는 어부와와의 대화에서처럼 오자서에 대한 평민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환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사마천은 이를 단지 “걸식했다”, “발병했다” 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마는데, 이는 그만큼 오자서가 큰 고통을 겪었음을, 이를 극복해내고 광을 통해 요에게 등용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일구어냈음을 환기하기 위함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②부분에는 요를 암살함으로써 광이 왕이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객 전저를 오자서가 광과 연결해준 서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객열전」(刺客列傳)에서 서술했기에 생략한 결과로 보인다.

③부분에는 합려가 드디어 초나라를 정벌하여 국세를 크게 신장하였고, 오자서가 이를 주도하는 한편 이에 결들여 부형의 복수를 수행, 평왕의 시신을 파내어 채찍질함으로 복수를 달성하는 오자서의 행위가 서술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초 소왕이 오나라에게 쫓겨 소국 운나라로 도망쳤을 때 투회가 살부의 원수인 평공의 아들 소왕에게 복수하고자 하였고, 이를 운나라의 제후인 형 투신이 말리지 못한 채 소왕을 모시고 소국 수나라로 재차 도망갔음이 서술되었다.⁵⁰ 이는 군왕을 대상으로 한 복수가 특이한 사례

49 오나라로 도망 중에 어부를 만나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례로서 보검을 주려 했지만 어부에게 거절당했다는 고사는 『춘추좌씨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고사는 『여씨춘추』 「이보」(異寶)에 처음 나온 듯하다.

50 『춘추좌씨전』 정공 4년 조에 보면 소왕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투회를 형 투신이 만류하며 어둠, 용기, 지혜, 효 등의 윤리를 내세워 투회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운다. 투회는 이에 복수를 포기하고 투신과 함께 소왕을 수나라로 피신시킨다. 사마천이 『춘추좌씨전』의 이러한 서술을 채택하지 않고 투신이 투회를 말리지 못해 소왕을 모시고 수나라로 피

가 아님을 환기해준다. 그리고 소국 수나라가 도망쳐온 초 소왕을 넘기라는 오나라의 압박에 맞서 소왕을 넘기기 않았다고 서술함으로써 오나라가 수나라를 굳이 치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관습적으로 ‘강초(强楚, 강대한 초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대국인 초나라를 정벌한 오나라가 마음만 먹었으면 소국 수나라를 쉬이 정벌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음으로써 소왕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을 환기하였다.⁵¹ 그러는 한편 오자서의 지기 신포서가 오자서의 복수 행위를 꾸짖는 대목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①부분에서 오자서가 비무기가 아니라 평왕을 복수 대상으로 설정했던 잘못이 여전히 유효함을 환기하였다. 사마천은 오자서가 초나라를 탈출하기 전 신포서를 만나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에 신포서가 자신은 반드시 초나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맹세하는 내용의 대화를 끼워 넣음으로써, 곧 한쪽의 지향을 실현하면 상대의 지향을 꺾는 것이 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포서가 진나라에서 원군을 얻어와 조국 초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한 행위를 우정을 저버리고 조국에 보복한 오자서에 대한 보복으로 읽힐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신포서가 진나라로부터 원병을 청해 온 것은 오자서가 점령한 초나라를 오자서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이는 오자서에 대한 분명한 복수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것을 빼앗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복수의 한 양상이기 때문이다.⁵² 이렇듯 ③부분에는 세 가지의 복수 서사가 수록되어 있다. 부형을 무도하게 죽인 평왕에 대한 오자서의 복수, 살부의 원수에 대한 투회의 복수, 조국을 배반하고 주군에게 욕을 보인 오자서에 대한 지기 신포서의 복수가 그것이다.

신포서라고 서술함은 군주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가 가능했음을, 드문 일이 아니었음을 환기하기 위한 의도의 소산으로 보인다.

51 한대 말엽 『춘추공양전』에 주석을 단 하휴(何休)는 사마천의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정공 4년 조 “複讎不除害(복수는 후환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에 대하여 주석을 달 때 “소왕은 비록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昭王雖可得殺, 不除去)”(『춘추공양전해고』(春秋公羊傳解詁):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646쪽)라는 주를 붙였다.

52 이에 관하여는 김월희(2015), pp. 100-111 참조.

한편 ③부분에서 사마천은 오자서가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시신을 꺼낸 다음 시신에 300차례의 채찍질을 가했다고 서술하였다. 『사기』 「오태백세가」(吳太伯世家)에도 “오자서가 평왕의 시신에 채찍질을 함으로써 부친의 원수를 갚았다”⁵³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사마천이 『사기』 집필에 많이 참고했다는 『춘추좌씨전』을 비롯하여 『춘추공양전』 등 앞선 시기의 관련 서술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변주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사마천 이전 시기에는 평왕의 시신이 아니라 평왕의 봉분에 300대의 채찍질을 가했다는 서술이 일반적이었다. “평왕의 무덤에 채찍질을 가했다”, “초 평왕의 봉분에 300차례 채찍질을 했다” 식으로 서술되었다.⁵⁵ 이러한 서술은 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의는 “평왕의 무덤에 매질을 가하였다”고 했고 유향도 “평왕의 봉분을 훼손했고 그 무덤에 매질을 가했다”라고만 했다.⁵⁶ 또한 「오자서열전」 이후인 후한(後漢) 시절에도 “오자서가 6천의 병졸을 이끌고 채찍을 쥐고서 평왕의 묘에 매질을 가했다”⁵⁷ 식으로 서술되었다. 평왕의 시신이 아니라 무덤에 채찍질을 했다는 전승이 사실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⁵⁸ 게다가 현실적으

53 子胥鞭平王之尸，以報父讎。

54 이와 관련해서는 潘法寬(2009), 「『史記』中的復讎故事和司馬遷的復讎觀」,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p. 6 참조. 왕릉바오(汪榮寶)(1987)도 『법언』(法言) 「중려」(重黎) 편의 오자서 관련 기사에 대한 주석(『법언의소』(法言義疏), 北京: 中華書局)에서 이는 사마천이 원본을 변질시켜 잔인함을 더하고자 한 것으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평하였다.

55 원문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撻平王之墓.”-『춘추공양전』 정공 4년, “鞭荊平之墳三百.”-『여씨춘추』 「수시」.

56 원문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撻平王之墓.”-『신서』 「이비」, “掘平王家，笞其墳.”-『설원』 「봉사」(奉使).

57 “子胥將卒六千，操鞭笞平王之墓.”-『월절서』(越絕書) 「형평왕내전」(荊平王內傳). 반면에 동 시기에 나온 『오월춘추』는 평왕 시신에 채찍질을 가했다는 사마천의 서술을 따르고 있다.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평왕의 묘를 파헤쳐 그 시신을 꺼내어 거기에 300차례 채찍질을 가했고 원발로는 시신의 배를 짓밟았고 오른손으로는 그 눈을 파내었다.(掘平王之墓，出其尸，鞭之三百，左足踐腹，右手扶其目.)”-『합려내전』(閻閭內傳).

58 평왕의 봉분에 300차례의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원한 해소를 위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

로도 오자서가 평양의 무덤에 도착한 시기는 평양 사후 십수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시신이 이미 진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사마천이 평양 시신에 직접 300차례 채찍질을 가했다고 서술한 것은 사마천이 오자서가 원한이 사무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되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하는 총평의 “오자서가 한창 강에서 쫓겨 죽을 고생을 하였고 도중에 걸식할 때조차 어찌 잠시라도 초나라로 향한 원한을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⁵⁹라는 반문과 호응되는데, 사마천은 이를 통해 오자서가 복수를 준비해간 십수년의 세월 내내 복수를 향한 원념을 놓지 않았기에 큰 공명을 세우면서 이에 곁들여 복수도 달성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곧 평양 시신에 300대의 채찍질을 가함을 오자서의 잔인함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로 읽어야 하는 의도나 문맥,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오자서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서술이 되었지만 말이다.⁶⁰

④부분은 오자서가 부형의 복수를 달성한 다음 시기의 일을 서술한 대목이다. ③부분에서는 초나라 탈출 후 오나라에 정착하여 부형의 복수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오자서의 경세 역량과 복수 행위를 축으로 서술되었다면 ④부분은 주군인 부차와 자신이 섬기는 오나라에 대한 오자서의 충성을 주요 축으로 서술되었다. 물론 복수 서사도 여전히 주요 축이다. 상술했듯이 복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 오나라에 보답함은 복수 수행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과정이다. 또한 와신상담 고사로 널리 알려진 부차와

가능하다. ‘300’은 ‘3×100’의 조합으로 3과 100은 두 수 모두 고대 중국에서는 완성, 총족의 수로 사용되었고, 시신 곧 죽은 신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봉분에 채찍질을 함으로써 봉분을 해쳤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책』과 「자객열전」의 예양 복수 서사에 나오는, 주군의 원수 조나라 양자의 옷을 세 차례 베고 자결하였다는 장면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와 신체 자체가 아닌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옷을 베다, 곧 해친다는 모티프가 목도된다. 이는 복수에 가해진 인문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59 方子胥寤於江上，道乞食，志豈嘗須臾忘郢邪。

60 봉분이 아니라 시신에 직접 채찍질을 가했다는 서술은 ‘동태보복(同態報復)’이라는 복수의 오랜 준칙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하여는 김월희(2024) 참조.

구천 사이에 주고받은 복수와 문면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자서가 역사를 무대로 벌인 부차에 대한 복수도 서술되어 있다. 부차가 부친 합려를 전사케 한 구천에게 행한 복수는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되었다. 전쟁에서의 승패, 전사 등은 말 그대로 “군사(軍事)에서는 늘 있는 일[兵家之常事]”임에도, 그래서 이 일로 복수를 주고받는 일은 드물에도 합려가 복수를 유언으로 남기고 부차가 복수에 나서게 된 저간의 사정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⁶¹ 이는 서술의 초점을 오자서의 충간 행위에 맞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충간은 월나라 제압 후 구천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오자서와 부차 간의 불협화음으로 촉발되었다. 구천은 살아남기 위해 치욕적인 강화조건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오자서는 구천을 살려주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면 죽이라고 간했으나 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월나라와 강화한다. 이후 부차는 월나라를 제쳐두고 제나라를 지속적으로 정벌하고자 했고 그때마다 오자서는 월나라를 멸절시키는 것이 먼저임을 간했다. 그러자 부차는 오자서의 계략을 쓰지 않았고 그를 멀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오자서는 자신의 죽음과 오나라의 멸망을 예감하게 되었고,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기회에 아들을 제나라 유력 집안에 양자로 들인다.⁶² 이

61 전쟁에서의 패배를 빌미 삼아 복수전을 벌이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용인된다면 결국 전쟁 당사자 간 상호 복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는 당사자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차가 복수를 수행하는 데는 다른 이유 내지 명분이 필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춘추좌씨전』 정공 14년 조의 기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합려가 구천과의 전투에서 구천이 구사한 반(反)인문적 전략으로 인해 패배하였고 부상을 입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부차의 구천에 대한 복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부친이 전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행된 ‘반인문적’ 행위로 인해 야기되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62 이 또한 사마천 이전의 서술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서술한 것은 오자서를 “복수는 당자에게 국한해야 한다”라는 복수의 준칙을 지킨 이로 형상화하기 위한 서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김월희(2024) 참조.

를 오자서와 불화 관계였던 백비가 부차에게 간했고 점점 오자서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던 부차는 오자서에게 자살을 명한다.⁶³ 오자서는 자살하기 전에 “내 무덤 위에 반드시 가래나무를 심어 훗날 부차의 관재로 삼아라. 내 눈을 파내어 오나라 도성 동문에 걸어두어 도적 같은 월나라 군사가 들어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하라”⁶⁴고 유언한 후 자결한다. 사마천은 이 대목에서 오자서의 말을 두 차례 짧지 않게 직접인용하는 등 오자서의 언행 서술에 힘을 주었다. 또한 사마천의 필치에서는 오자서가 스스로 선택하여 자결했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으며,⁶⁵ 오자서는 부차가 자신을 안 믿는 것을 보고 오나라의 쇠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예감하고는 아들을 제나라 포 씨 집안에 맡기는 등 미래를 대비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지면을 달리하여 서술하겠지만 이는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선행하는 관련 전승을 채택하지 않고 오자서가 역사를 무대로 부차에 대하여 행하는 복수로 읽힐 수 있도록 안배한 대목이다.⁶⁶

한편 오자서의 저주 섞인 유언을 들은 부차는 크게 분노하여 오자서의 시신을 말가죽으로 싸서 강물에 던져 넣었다. 이에 사람들은 오자서를 불쌍히 여겨 사당을 세워준다. 사마천이 이를 굳이 서술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부차보다는 오자서를 더 지지했음을 환기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①, ②부분

63 이 점에서 백비는 비무기 형상과 동일시된다. 곧 ‘백비-부차’ 쌍은 ‘비무기-평왕’ 쌍과 구조적 상동성을 띤다. 가령 백비가 오자서를 무고하는 것은 비무기가 오사를 무고한 것과 동일하며, 이 둘의 무고를 군주인 부차와 평왕은 아무런 진위 판별 없이 수용한다. 그럼으로써 오자서의 이 두 군주에 대한 복수가 야기된다. 또한 오자서는 비무기가 아닌 평왕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듯이 백비가 아닌 부차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자서가 일관되게 군왕을 복수 대상으로 설정했음이니 결국 자신에게 복수를 유발한 최종 책임자는 군왕이라고 여긴 셈이다.

64 必樹吾墓上以梓，令可以為器。而扶吾眼懸吳東門之上，以觀越寇之入滅吳也。

65 오자서가 스스로 자결했다는 전승도 있다. 『국어』 「오어」(吳語) 편에 보면 부차가 자신과 잇나가는 행보를 취해온 오자서를 불러 훈계하자 오자서가 오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가 섬기는 군주가 월나라의 포로가 되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다며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이 실려 있다.

66 이에 대하여는 김월희(2024) 참조.

에서 오자서의 복수 행위가 불충으로 읽히지 않도록, 곧 비윤리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안배했던 사마천의 서술 전략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마천이 백비가 부처에게 오자서를 무고하며 올린 말을 직접인용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용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자서열전」에 실린 직접인용된 말 중에서 오자서의 말을 빼고는 가장 긴 분량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별다르게 주목할 바 없는 내용인 백비의 말을 사마천은 왜 이렇게까지 짧지 않은 분량으로 직접인용을 했을까 하는 물음을 유발한다. 이는 이렇게 해석된다. 백비는 오자서와 마찬가지로 초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나라로 망명해온 후 중용되었다는 점에서 오자서와 동일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나라 정벌 이후, 그러니까 복수를 달성한 다음부터 백비는 오자서와 대척점에 서서 오자서의 계획을 번번이 무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백비의 형상은 복수 달성 이후 오자서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둘이었음을 환기해준다. 보답의 길과 안주의 길이 그것이다. 보답의 길은 오나라 국력을 활용하여 복수를 달성한 만큼 이를 가능케 해준 오나라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는 복수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오나라 국력이 큰 기반이 된 만큼 복수를 달성한 다음에는 이에 대하여 보답함이 윤리적 차원에서 의로운 일이요, 그럼으로써 복수가 진정으로 완성된다고 여긴 관념의 소산이다. 그런데 오자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보답하는 길 말고 또 하나가 있다. 복수를 달성한 만큼 자신이 성취한 바를 누리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길이 그것이다. 이 두 길 중에서 오자서는 오나라에 보답하는 길을 선택하여 죽기까지 충군애국의 태도를 놓지 않았다. 이와 달리 백비는 자신이 성취한 바에 안주하고 이를 누리고 사는 길을 택하고는 오자서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 또한 오자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고 백비는 그 길을 걸었다. 사마천은 백비의 이러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그의 말을 길게 직접인용하였고, 그럼으로써 복수 달성 이후 백비의 삶은 오자서가 취한 보답이라는 길의 의로움을 더욱 빛내주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오자서가 단순히 사적 차원의 복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적어도 자신이 섬기는 국가의 발전을 함께 중시했음을 부각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백비의 말을 길게 직접인용한 것은 오자서의 복수 서사에서 수행하는 백비의 이러한 역할을 환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이러한 서술 전략은 오자서 비판의 한 계기가 되는, 사적 복수에 국가의 힘을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비난 내지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안배로 읽힌다. 백비처럼 국가의 힘을 이용하기만 하고 그 성과를 사사롭게 누리고 마는 형상이 아니라, 국가를 죽기까지 이롭게 하고자 국가에 보답하는 오자서의 형상을 백비와의 대조를 통해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자서의 윤리적 높이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곧 사마천은 「오자서열전」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오자서의 ‘조국·군주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서술 전략을 견지했음이다. 한편 부차는 오자서가 죽은 후 제나라 등 북방 경영에 더욱 매몰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틈을 타서 구천이 오나라를 쳐 멸망시키고 부차를 죽인다. 부차에 대한 구천의 복수도 이렇게 달성된다. 또한 역사를 무대로 벌인 부차에 대한 오자서의 복수도 달성된다. 오자서의 말이 옳았고 부차가 틀렸음이 입증됨으로써 오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한 빼어난 인재로, 부차는 그러한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은 어리석은 군주로 역사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오자서 관련 마지막 서술은 이상의 서술을 토대로 한 사마천의 오자서 복수에 대한 총평이다.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사공은 말한다. “사무친 원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심하다. 왕이라 해도 신하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서라! 일찍이 오자서가 오사를 따라 같이 죽었다면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달랐겠는가? 그는 소의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명성이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비장하도다! 오자서가 한창 강에서 쫓겨 죽을 고생을 하였고 도중에 걸식할 때조차 어찌 잠시라도 초나라로 향한

원한을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참고 견디 공명을 이루었으니 강인하고 절개 높은 장부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에 이를 수 있겠는가?⁶⁷

여기에는 오자서의 복수 행위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사마천의 관점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오자서가 부친의 구명을 위해 평왕의 소환에 응하여 부친과 함께 피살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 삶의 가치는 ‘하찮은 땅강아지나 개미’에 해당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런 후 그의 명성이 후세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큰 공명을 이루게 한 것은, 그를 강인하고 절개 높은 장부로 성장시킨 것은 다름 아닌 ‘사무친 원한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복수에 대한 염원이 오자서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마천은 복수를 기축으로 하고 ‘복수 수행과 보답 수행’, 그러니까 복수를 준비해가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인 경세 역량과 복수 달성 후에 견지한 충성을 하위 축으로 삼아 「오자서열전」을 서술했다. 그런 다음 총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식을 하는 등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수의 염원을 놓지 않았기에, 복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큰 공명을 세웠다고 극찬하였다. 결국 사마천은 오자서를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오자서에 대한 앞선 시대의 평가와 사뭇 다른 평가를, 곧 ‘복수의 달인’으로 그를 형상화해냈던 것이다. 이는 사마천 이전에 오자서 고사를 서술한 『춘추좌씨전』, 『국어』, 『전국책』 등과는 확실하게 다른 면모이다.

4. 맺음말

한대 초엽에 들어 오자서 서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67 太史公曰, “怨毒之於人甚矣哉。王者尚不能行之於臣下, 況同列乎。向令伍子胥從奢俱死, 何異螻蟻。棄小義, 雪大恥, 名垂於後世, 悲夫, 方子胥窘於江上, 道乞食, 志豈嘗須臾忘郢邪。故隱忍就功名, 非烈丈夫孰能致此哉。”

따라 오자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도 화제가 되었다. 가령 가의는 『신서』 「이비」 편에서 오자서 고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사마천의 「오자서 열전」은 이러한 흐름의 총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자서 열전」에서 오자서 형상을 복수의 달인으로 새로 빚어낸 서사는 사마천 이후에도 지속되어 후한에 들어 『월절서』, 『오월춘추』 등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오자서 고사를 역사에서 문학으로 확장시키는 등의 변주를 일궈냈다.⁶⁸

물론 사마천의 오자서 읽기가 이후의 오자서 읽기에 유일무이한 전범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유향의 『설원』 「지공」 편과 「선모」 편, 유향의 또 다른 저술 『신서』의 「절사」(節士) 편에 서술된 오자서 고사를 보면 복수보다는 사적 원한을 공적 영역에 개입시키지 않은 치자로서의 태도, 그의 빼어난 경세 역량과 심모원려한 계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⁶⁹ 오자서를 복수의 달인이 아니라 춘추전국시대처럼 치국의 달인으로 보았음이다. 그런가 하면 사마천보다 앞선 시대인 가의의 『신서』 「이비」 편의 오자서 복수 서사를 보면 오자서를 “나쁜 말이나 내뱉고”, “나쁜 마음을 품고 어긋난 짓을 하고, 사무친 원한을 갚는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재앙을 입힌⁷⁰” 사람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자서의 복수뿐 아니라 사람됨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이다. 전한 말엽의 양웅(揚雄)은 오자서의 복수는 모두 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서 오자서의 복수에 대한 사마천의 견해를 비판하기도 했다.⁷¹ 후한의 학자 서간(徐干)도 자신의 저술 『중론』(中論) 「요수」(夭壽) 편에서 오자서가 신하로서의 예를 어기고 군주에게 복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⁷² 이는 후한 초엽, 장제(章帝)의 칙명으로 간행된 『백호통의』(白虎通義)나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나온 허신(許慎)의 『오경이의』(五經異義)에 표방된

68 이에 관하여는 韓婷婷(2007), p. 39, pp. 49-50 참조.

69 邱立波(2005), p. 85.

70 관련 원문은 차례로 “出凶言”, “懷賊行虐, 深報而殃不辜”이다.

71 邱立波(2005), pp. 86-86.

72 邱立波(2005), p. 87.

군주에 대한 복수를 금하는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⁷³ 사마천이 새로이 빚어 낸 오자서 형상이 그 이후에 오자서 평가를 압도하지는 못했음이다. 그럼에도 사마천이 오자서를 복수의 달인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오자서 서사의 역사에서 자신 이전과 이후가 나뉘게끔 했다는 평가는 너끈히 내릴 수 있다.

한편 「오자서열전」에 서술된 오자서의 복수 서사는 그 자체로 사마천의 복수론이기도 하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적지 않은 이야기가 ‘의론(議論)형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의론도 겸하고 있는 형식⁷⁴이라는 점에서도 지지된다. 가령 이러하다는 것이다. 『춘추좌전』은 사마천 스스로가 많이 참조하였다고 밝힌 텍스트로, 여기에는 적잖은 복수론이 개진되어 있다. 문공 6년(621 BCE) 조의 다음 기사는 대표적 예다.

진(晉)나라에서 양처보를 살해한 속간백을 죽이자 호역고가 오랑캐 땅인 적(狄)으로 달아났다. 이에 조선자가 유변을 시켜 호역고의 처자를 적으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전에 이(夷)에서 군대 사열을 할 때 호역고가 유변을 모욕한 적이 있었다. 하여 유변의 수하들이 호역고의 집안사람들을 죽여 그때의 일에 보복하고자 했다. 그러자 유변이 말했다. “안 된다. 내 듣건대 《전지(前志)》에 이르기를, ① ‘은혜를 갚든 원한을 갚든 당사자가 아닌 자손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타인에게 충(忠)을 행하는 도리이다. 또한 ② 주군께서 호역고에게 예를 갖췄는데 내가 그의 충애에 기대 사원(私怨)을 보복함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③ 다른 사람의 충애를 개입시킴은 용기가 아니다. 또한 ④ 원한을 덜어낸다고 하면서 원한을 더함은 지혜가 아니며, ⑤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해침은 섬기는 이에 대한 충이 아니다. 이 셋을 버리고 무엇으로 주군을 모시겠는가?” 이에 유변은 호역고의 집안 식구와 가재도구, 재물을 모두 수레에 싣고 직접 인솔하여 국경까

73 『백호통의』와 『오경이의』에 표방된 복수론에 대하여는 邱立波, p. 87 참조.

74 의론형 이야기에 대하여는 김월희(2013), 「선진(先秦)의 복수 이야기와 그 독법」, 『중국문학』 76, 한국중국어문학회의 <2. 이야기, 서사와 의론의 복합체> 참조.

지 호송했다.⁷⁵

인용문에서 도출 가능한 유변의 복수 반대 이유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당사자가 아닌 후사에게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①)는 것으로 여기에는 타인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의 충이란 윤리가 깔려 있다. 둘째는 당사자 자신의 힘이 아닌, 공적 권위나 힘을 이용한 복수는 안 된다(②)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禮)라는 윤리가 깔려 있다. 셋째는 타인의 힘, 호의 등을 이용하여 설욕함은 안 된다(③)는 것으로 이는 용(勇)이라는 덕목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복수는 용이라는 덕목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깔려 있다. 넷째는 보복을 키우는 것은 안 된다(④)는 것으로 여기에는 복수는 지(智)라는 덕목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깔려 있다. 한편 이는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으로 이 점에서 ①과 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다시 언급한 것은 지라는 덕목과 복수 윤리를 연계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는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해쳐서는 안 된다(⑤)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적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뜻의 충이란 윤리가 깔려 있다. 언뜻 보면 유변이란 인물의 이야기를 그저 서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듯 정성, 예의, 용기, 지혜, 충성과 같은 덕목, 곧 윤리를 개입시켜 복수의 윤리를 의론한 글이기도 하다.

「오자서열전」도 이처럼 오자서의 복수 서사를 전적으로 다루면서 오자서 형상을 복수의 달인으로 빚어내는 작업을 수행한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사마천은 그러한 오자서 서술을 통해 이전 시기부터 수행되어온 복수에 대한 인문적 대응의 소산을 총괄함으로써 ‘복수의 인문학’을 정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⁷⁹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75 晉殺續簡伯。賈季奔狄。宣子使臯駘送其帑。夷之蒐，賈季戮臯駘，臯駘之人欲盡殺賈氏以報焉。臯駘曰，“不可。吾聞前志有之曰，‘敵惠敵怨，不在後嗣，忠之道也。’夫子禮於賈季，我以其寵報私怨，無乃不可乎。介人之寵，非勇也。損怨益仇，非知也。以私害公，非忠也。釋此三者，何以事夫子。”盡具其帑與其器用財賄，親帥扞之，送致諸境。

참고문헌

- 賈誼(2007), 박미라 역, 『新書』, 서울: 소명출판.
- 孟軻(2013), 김학주 옮김, 『孟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墨翟(2003), 김학주 옮김, 『墨子(上, 下)』, 서울: 명문당.
- 荀卿(2001), 김학주 옮김, 『荀子』, 서울: 을유문화사.
- 劉向(2020), 김영식·이남중·최일의 번역, 『說苑(1-3)』,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劉向(2009), 임동석 역, 『新序(1, 2)』, 서울: 동서문화사.
- 袁康·吳平(2012), 김영식 번역, 『越絕書』,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莊周(2010), 김학주 옮김, 『莊子』, 서울: 연암서가.
- 趙曄(2012), 김영식 번역, 『吳越春秋』,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韓非(1998), 김학주 번역, 『한비자(상, 하)』, 서울: 명문당.
- 韓嬰 撰(2009), 임동석 역, 『韓詩外傳』, 서울: 동서문화사.
- 賈公彥 疏(2000), 『周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孔穎達 等 撰(1985), 『禮記正義』, 上海: 上海書店.
- 孔達穎 等 撰(2000), 『春秋公羊傳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杜預 集解(1997), 『春秋經傳集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范甯 集解(2000), 『春秋穀梁傳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司馬遷 撰(1959), 裴駰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史記』, 北京: 中華書局.
- 呂不韋(1986), 高誘 注, 『呂氏春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汪榮寶(1987), 『法言義疏』, 北京: 中華書局.
- 何建章 撰(2002), 『戰國策註釋』, 北京: 中華書局.
- 강정민(2010), 「한나 아렌트의 방법론—이론으로서의 ‘이야기하기’」,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월희(2015), 「선진시기 복수의 인문화 양상」, 『중국문학』 83, 한국중국어문학회.
- 김월희(2013), 「선진의 복수 이야기와 그 독법」, 『중국문학』 76, 한국중국어문학회.
- 윤세순(2013),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 이은영(2007), 「오자서 이야기의 전승, 변화 그리고 영향—원명칭 희곡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50, 한국중국어문학회.
- 이종숙(2011), 「분노, 복수, 복수 비극의 역사」, 『서양고전학연구』 45, 한국서양고전학회.
- 전인초(1998), 「오자서고사의 중국소설사적 전승과 변용 양상」, 『중국어문논집』 15,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 韓婷婷(2007), 「论传统道德伦理影响下的伍子胥故事」, 首都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潘法寬(2009), 「『史记』中的復讎故事和司马迁的復讎观」,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邱立波(2005), 「汉代復讎所见之经、律关系问题」, 『史林』第3期.
- 张伶俐(2010), 「『史记』與『汉书』中的復讎事象对比研究」, 华中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9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3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ABSTRACT

Image of Oh Jaseo (伍子胥)
from the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Early
Han (漢) Dynasty

Kim, Weol hoi*

Re-reading <Oh Jaseo Yeoljeon> (伍子胥列傳) of
Sagi (史記) (1)

This paper is designed to re-read <Oh Jaseo Yeoljeon>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discourse on revenge that has been fulfilled since the Pre-Jin (秦) period, and to re-establish it as an important text in Chinese revenge theory in the premodern period. This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two papers. This is the first of papers, which aims to provide a basic overview of revenge narratives and topics of revenge in <Oh Jaseo Yeoljeon> for a deeper analysis of the revenge theory of <Oh Jaseo Yeoljeon>. To this end, Section 2 examines how Oh Jaseo was viewed and shaped in the Spring and Autumn-Warring States Period. This is because it provides a useful basis for examining how Sama Cheon (司馬遷) reinterpreted Oh Jaseo in his <Oh Jaseo Yeoljeon>. In Section 3, I analyze the narrative of <Oh Jaseo Yeoljeon> by following the content of <Oh Jaseo Yeoljeon>. The contents of <Oh Jaseo Yeoljeon> are divided into six parts, excluding the concise introdu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Oh Jaseo's family. Of these, five parts are directly related to Oh Jaseo, I have analyzed their contents immanently. Section 4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above work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analyzing Sama Cheon's revenge theory as reflected in <Oh Jaseo Yeoljeon>, and as an example of re-reading <Oh Jaseo Yeoljeon>

Keywords Revenge, Revenge theory, Revenge story, Oh Jaseo (伍子胥), Oh Jaseo Yeoljeon (伍子胥列傳), *Sagi* (史記), Sama Cheon (司馬遷), Spring and Autumn-Warring States Period